

 금융위원회	보 도 자 료			• 생산적 금융 • 신뢰받는 금융 • 포용적 금융
	보도	2017.9.29(금) 조간 이후	배포	2017.9.28(목)
책 임 자	금융위 중소기업과장 신진창(02-2100-2990)		담 당 자	양재훈 사무관 (02-2100-2993)
	서울보증보험 상품개발부장 최성환(02-3671-7350)			손명룡 상품개발팀장 (02-3671-7388)

제 목 : 사이트 대출 공급액 1조원 달성

- '17.9.27일 기준 사이트 대출의 누적 공급액이 1조원에 도달
- 약 10만명의 중·저신용자에 금리 6~18%수준 신용대출을 안정적 공급
- 민간 중금리 시장도 지속 확대되어 '17.上 1.4조원 공급 실현

1 사이트 대출 운용 실적

- '17.9.27일 사이트 대출이 1차 공급 목표였던 1조원을 달성
 - 사이트 대출은 중금리 대출 활성화의 마중물*로서 금융당국, 금융사, 보증기관간 협력으로 '16.7월 은행권에서 최초로 출시
 - * 사이트 대출 취급을 통해 금융회사의 중금리 대출 관련 정보·노하우 축적
 - 이후, '16.9월 저축은행권, '17.6월 상호금융권으로 취급기관을 확대하면서, 안정적으로 공급
- ※ 한편, 금융당국과 관련기관은 사이트 대출에 대한 금융기관·소비자의 수요를 반영하여 '17.4월 공급한도를 2조원으로 확대 (현재 2.15조원)
 - (은행) 5천억원→9천억원, (저축은행) 5천억원→9천억원, (상호금융) 미취급 → 2,000억원 (채무조정졸업자) 미취급 → 1,500억원
 - * '17.7월 채무조정졸업자 전용 저축은행 사이트 대출 출시로 0.15조원 추가 확대

- '17.9.27일 기준 사이트 대출 대출 취급액은 10,033억원(97,051건)이며, '17.6월 출시된 상호금융권 사이트 대출 대출도 안정화 추세
 - (은행) 9개 은행('16.7.5일~) 및 4개 지방은행('16.9.1일~)에서 총 5,446억원 (일평균 17.7억원, 총 48,371건) 지원
 - (저축은행) 38개 저축은행('16.9.6일~)에서 총 4,176억원(일평균 15.8억원, 총 45,036건) 지원
 - (상호금융) 신협·농·수협·새마을금고('17.6.13일~)에서 총 411억원 (일평균 5.4억원, 총 3,644건) 지원

2 실적 분석 (~'17.9월)

- ◆ 당초 목표대로 중신용(4~8등급)·중위소득자(연소득 2~4천만원)를 주요 고객으로 하여 6~18%수준의 대출금리 형성
- ◆ 상호금융권의 참여로 은행·저축은행권과 상호 보완적으로 보다 촘촘하게 중금리 대출 시장 형성

- (대출금리) 평균금리는 은행 7.56%, 상호금융 8.57%, 저축은행 16.67% 수준으로 형성 (대출액 기준 가중평균 금리)

< 금리대별 대출 비중 (단위 : %) >

	~6%	6%	7%	8%	9%	10%	11%	12%	13%	14%	15%	16%	17%	18%	19%
은행	6.8	24.6	33.0	20.5	9.9	4.5	0.7								
상호금융	4.2	9.7	16.7	22.8	21.8	15.1	6.1	2.3	0.7	0.6	0.1				
저축은행				0.2	0.1	0.6	0.9	2.5	1.9	8.7	15.8	18.5	26.3	16.9	7.6

- (대출금액) 1인당 평균대출액은 은행 1,126만원, 상호금융 1,125만원, 저축은행 925만원 수준
- (신용도) 은행은 3~6등급(78.8%), 상호금융은 4~7등급(83.6%), 저축은행은 5~8등급(93.8%) 중심으로 대출 실행

< 신용등급별 대출 비중 (KCB 등급 기준, %) >

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6등급	7등급	8등급	9등급
은행	3.1	9.4	16.1	22.9	24.7	15.9	7.7	0.1	-
상호금융	1.6	3.7	10.6	19.7	26.9	22.7	14.3	0.5	-
저축은행	0.1	0.5	1.5	4.0	11.0	23.4	51.7	7.6	0.1

- (이용자 평균소득) 은행 4,015만원, 상호금융 3,775만원, 저축은행 2,989만원 수준
- (이용 연령층) 경제활동이 활발한 30~40대 대출자 비중이 높으며 (은행 66.1%, 저축은행 66.2%, 상호금융 60.5%)
 - 상호금융권은 50대의 비중도 27.1%로 상대적으로 연령층이 높은 편
- (연체율) 대출 초기이나, 연체율은 1.2%*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** 대출 건전성을 유지 중
 - * (은행) 0.6%, (저축은행) 2.1%, (상호금융) 최근('17.6월) 출시하여 제외 ['17.8월기준]
 - ** 저축은행업권 가계신용대출 평균 연체율 6.1% ('17.6월)

3 중금리 대출 활성화 추진 현황 및 계획

- (현황) 그간 금융당국은 사잇돌 대출 외에도 민간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해 신용평가 인프라 확충, 인센티브 부여 등 노력 지속
 - ① (서민금융평가 개선, '16.1월) 은행의 중금리 대출 및 제2금융권 연계대출 실적을 서민금융평가에 반영
 - ② (신용평가제도 개선, '16.8월) 은행-제2금융권 연계대출자 신용등급 하락폭 완화 및 저축은행에 대부업 정보(연체액, 대출액 등) 공유
 - ③ (인센티브 제공, '16.9월) 저축은행 영업구역내 의무대출 비중 산정시 중금리 대출을 우대 적용
 - ④ (비교공시 강화, '16.10월) 금융상품 통합비교사이트("금융상품 한눈에")에 업권별 중금리 대출상품 및 금리(평균·최고·최저)를 별도 공시
- (계획) 사잇돌 대출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한편, 여타 중금리 대출 활성화 지원책을 차질 없이 추진
 - (사잇돌 대출) 사잇돌 대출 공급현황, 연체율 등을 지속 모니터링 하여, 필요시 대출조건·한도·보증료율 등 개선여부 검토
 - (여타 지원책) 소비자에 대한 중금리 대출 정보제공 강화*, 제2금융권 이용시 신용등급 하락폭 조정 등 신용평가체계 개선도 지속 추진
 - * 은행·저축은행·여전업·농협 공시 중 → 새마을금고·신협 추가(~10월) 등

4 민간 중금리 대출 시장 현황

- ◆ 사잇돌 대출의 안정적 공급, 중금리 대출 활성화 시책 등에 따라 민간 중금리 대출 시장도 지속적으로 확대
- ◆ 사잇돌 대출이 민간 중금리 대출의 '축매'이자 건전한 경쟁자로서 민간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

- '17년 상반기 은행·저축은행·여전사·상호금융의 중금리대출 취급액은 13,917억원(사잇돌·P2P대출 제외)

※ 중금리 대출 규모는 각 금융사의 제출자료를 중심으로 평균금리 18% 이하이고, 4~10등급 차주에 70%이상 실행된 가계신용대출로 산정
 □ 개별 금융회사가 자체 기준에 따라 중금리 대출로 관리하는 상품이 자동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으며, 금리 및 중저신용자 취급비중 등을 감안하여 감독목적*상 별도로 산정한 규모
 * 서민금융평가, 저축은행 영업구역내 의무대출 비율 적용시 우대, '금융상품 한눈에' 비교공시 등에서 '중금리 대출'의 기준으로 활용

- '17년부터 중금리대출을 본격 공급한 인터넷은행과 상호금융을 제외하더라도 11,726억원으로 전년 동기(3,975억원)의 약 3배 수준
 - (은행) 인터넷전문은행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(407억원) 대비 4.8배 증가한 1,941억원 취급
 - (저축은행) 전년 동기(2,067억원) 대비 2.3배 증가한 4,738억원 취급
 - (여전사) 전년 동기(1,501억원) 대비 4.3배 증가한 6,418억원 취급
 - (상호금융) 주로 신협(상반기 중 805억원 취급)을 중심으로 취급
- 민간 중금리대출 잔액도 지속 증가하는 추세
 ('16년말 9,809억원→'17.3월말 13,853억원→'17.6월말 17,917억원*)
 - * (은행)2,276억원 (저축은행)7,377억원 (여전사)7,520억원 (상호금융)744억원

<금융 용어 설명>

- 사잇돌 대출 : 중·저신용자에게 중금리 대출상품 공급을 목적으로 서울보증보험과 연계하여 취급하는 중금리 보증대출상품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prfsc@korea.kr

